

아이돌봄센터, 부모 만족도 95%

순창군, 설문조사 결과 실질적인 양육 부담 해소 부분서

순창군이 아이돌봄센터를 통해 지역 내 돌봄 공백을 획기적으로 메우며, 학부모는 물론 아이들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1월에 개관한 아이돌봄센터는 어린이집·유치원 하원 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간으로, 평일 오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일요일, 공휴일은 휴관이다.

아이돌봄센터는 사전에 신청한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전문 교사들의 지도 하에 단순한 돌봄을 넘어 다양한 교육 활동과 창의적인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돕고 있다.

아울러, 인접한 가족센터의 지원을 받아 어린이집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원어민 강의를 제공되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전문 조리사를 채용해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단은 물론이고 매일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제공해 부모님들은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자녀를 맡길 수 있어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작년 돌봄센터를 이용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운영 프로그램에 만족도 및 실질적인 양육 부담 해소 부분에서 95%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최근 아이돌봄센터를 이용한 한 학부모는 "평일에 야근이 있거나, 주말에 갑자기 출근해야 할 경우 마땅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멀리서 살고 계시는 부모님이 급하게 오시거나 마음을 졸이는 상황이 많았는데 아이돌봄센터가 생겨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어 정말 좋다"며 만족해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아이들은 미래의 주인공이자 희망의 씨앗으로, 우리 아이들이 지역 내 돌봄 인프라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군민 누구나 안정적인 양육을 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봄센터 이용 대상은 미취학 아동인 3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이며, 긴급한 경우 당일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다.



순창군이 아이돌봄센터 (사진=순창군청 제공)



임실봉황인재학당 전경 (사진=임실군청 제공)

임실봉황인재학당, 인재육성 '앞장'

진로 설계, 택시조합과 안전한 등·하원 업무협약 등 지원책 마련

도시와 농촌 간, 지역·계층 간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 육성에 앞장서 온 임실봉황인재학당이 개원 7년 차를 맞아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지난해 12월 신입생 모집 공고와 선 받고사를 통해 관내 중학생 150명, 고등학생 52명 등 총 202명의 수강생을 선발해 지난 8일 첫 등원을 시작했다.

임실봉황인재학당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등반은 학년별 3개반 총 9개반을, 고등반은 학년별 1개반 총 3개반으로 12개반을 구성하여 우수한 대학을 졸업한 수도권 출신 강사진이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중심으로 방과후 교육을 실시한다.

매주 말에는 심화반 운영 및 기말·중간고사 기간에는 과학과 역사 과목 내신 특강을 진행하여 관내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학생 개개인의 학습전략검사,

성격유형검사 및 학습 능력을 측정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진로적성검사 등 비교과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하여 학습 능력 향상뿐 아니라 자기만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고 있다.

또한, 봉황인재학당은 상담 주관을 운영해 학생들의 성적, 진학, 학습 관련 고민에 대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월간 정기 통신문을 발송하여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원 지원을 위하여 지역 택시조합과 업무협약을 맺고 버스 3대, 택시 14대를 지원, 안심하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운영할 계획이다.

봉황인재학당은 지난 2018년 개원 이후 매년 150명씩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부족한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고 중등교육의 질을 한 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실군, 3년 연속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임실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임실군은 3년 연속 정보공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기쁨을 토 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 제고를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해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4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수준 향상, 국민의 알 권리 증진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 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평가한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55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사전정보(30점) △원문

공개(20점) △청구처리(30점) △고객 관리(20점) 4개 분야 12개 지표로 평가했다. 군은 2023년도 정보공개 평가 영역별 12개 지표 중 8개 지표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세부 내역은 △사전정보공표 등록 건수 △개방형포맷 전환 실적 △원문 공개의 충실성 △비공개 세부기준 적합성 △청구처리 적정성 △청구처리 지연 △고객 수요분석 실적 △정보공개법 준수성이다. 이에 임실군은 92.94점을 획득해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됐으며, 이는 기초지자체 군유형 평균 79.03점보다 13.91점이 높은 점수다.

남원시, 2023 지적·토지업무 최우수기관 표창

정부기관 지적(토지)분야 평가

남원시가 2023년도 정부기관 지적(토지)분야 평가에서 잇따라 최우수기관 표창(3점)을 수상, '문화와 미래 산업 도시'를 위한 순조로운 행보에 일조하는 등 지적·토지업무 최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2024년 중점 추진 사업으로 지적분야에서는 지적행정 및 국가기본도 품질 향상을 위한 고정밀 연속지적도 구축으로 도곽·축척 간 도면 경계, 대장 면적 등 개발/연속지적도 불일치

를 해소하고 지적문서, 도면 등 훼손·마모 방지하고자, 구)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데이터 베이스(DB) 구축 및 토지이동결의서, 폐쇄도면 등 전자화를 추진한다.

지적재조사팀은 수치1·금지2·태평·효기·산내지구의 사업 추진 시드론 등 신기술 활용해 지적재조사 측량기간을 단축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시킬 계획이며, 부동산관리팀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동결 및 공시가격 변동률 최소화하여 주민 세세 부담을 감소 시킬

예정이고, 공간정보팀에서는 고정밀 수치지형도 구축과 주소정보시설 확충으로 도로명주소 생활화 기반 제공 및 인지도 향상,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로 산악 등 비거주지역의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관해정 민원과정은 "지적·토지행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업무 연한 등 앞으로도 국토 공간 분야에 대한 선도적 시책을 적극 추진으로 문화와 미래산업도시에 밑거름이 되겠다"고 밝혔다.

남원소방서, 전기차 충전 중 화재 예방 당부

남원소방서(서장 박현)는 10일, 전기차와 충전시설 보급률이 늘어남에 따라 겨울철 전기차 충전 중에 일어날 수 있는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당부했다.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

는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주로 충전·방전 중에 화재가 발생한다. 추운 겨울에는 전해질이 굳어 배터리 내부의 저항이 증가하여 열이 발생하면서 배터리의 성능이 저하되고, 과열이나 과충전, 충돌 등의 외부 요인에 의해 화

재가 발생할 수 있다.

겨울철 전기를 안전 충전수칙은 △충전 전 케이블과 커넥터 손상여부 확인 △뜨거운 손이나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충전 금지 △충전기 전원차단시 강제 ON 사용 금지 △커넥터 단자에 금속물체 접촉 금지 △충전중 차량 동작 금지 등이다.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몽선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유적이 많은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